

## 현장 보도자료

제목	<변론은 끝났다. 2차 가해를 멈춰라!> 기자회견 보도자료		
담당자	페미니즘당 공동대표 이가현 / 010-3292-8563		
이메일	<a href="mailto:femipartykr@gmail.com">femipartykr@gmail.com</a>	웹사이트	<a href="http://femiparty.org">femiparty.org</a>

### 다큐멘터리 <첫 변론> 개봉 규탄 기자회견 변론은 끝났다. 2차 가해를 멈춰라!

- 일시: 2023.6.27.(화) 10:00-11:00 (발언 45분, 퍼포먼스·기자회견문 낭독 15분)
-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서울 마포구 성지1길 32-42, 지하 1층)
- 공동주최: 46개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및 정당

1. 오는 2023년 7월 9일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3주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 맞추어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의 <비극의 탄생>을 기반으로 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첫 변론>이 개봉합니다.
2. 이에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다큐 <첫 변론> 개봉을 규탄하는 760명의 시민과 46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의 연대 서명을 모았습니다. 또한 다큐의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다큐를 보는 것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알리며 <첫 변론> 개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3. 기자분들의 많은 참석과 보도를 바랍니다.(별첨 : 발언문, 기자회견문)

- 아 래 -

시간	발언자(직책/소속)	내용
10:00-10:10(10')	이가현 공동대표/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언자와 기자회견 취지 소개 다큐가 기반하고 있는 손병관 기자의 <비극의 탄생> 내용과 관점의 문제점
10:10-10:15(05')	이소윤 공동대표/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	업무상 성희롱 경험자의 연대발언
10:15-10:20(05')	박은하 위원장/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대응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 피해 현황과 사례
10:20-10:25(05')	김세정 공인노무사/돌꽃 노동법률사무소	다큐 <첫 변론>이 불러일으킬 2차 피해
10:25-10:30(05')	이대호 전 서울특별시 미디어비서관	다큐 <첫 변론>이 가진 모순과 문제점
10:30-10:35(05')	김가영 부대변인/정의당	다큐 <첫 변론>과 권력형 성범죄 근절의 어려움
10:35-10:40(05')	명숙 상임활동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연대발언
10:40-10:45(05')	김지윤 대외협력국장/녹색당	연대발언
10:45-10:50(05')	기자회견문 낭독	
10:50-11:00(10')	퍼포먼스	

7년입니다.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4년, 그리고 고소를 결심한 뒤 가해자가 사망하고 지금 가해자와 관련된 영화가 다시 나오기까지 3년입니다. 스물 여섯살부터 무려 7년의 시간동안 한 여성이 감내해야했을 사회의 무게는 지나치게 무거웠습니다. 피해자는 동료직원에게 성폭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때 시장실은 가해자를 보호하며 문제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것에만 급급할 뿐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보호나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언론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의의 책임을 다해야 할 언론인 중 한 명,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결론을 정해놓고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는 사건에 대한 첫 취재부터 언론과 여성단체가 가해자를 “마녀사냥”했다는 가정에 무게를 두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를 ‘남녀관계의 일’로 언급하며, 피해자와 시장실 관련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듯이 접근했습니다.

손병관 기자는 시장실 관련자들이 의도적으로 유포했던 피해자의 근무태도와 표정, 편지, 성격을 책<비극의 탄생>을 통해 다시 한 번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의심하는 질문을 시장실 관련자들에게 집착적으로 하고,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증언한 인터뷰이에게는 ‘그 기억이 난 시점이 박원순 사망후냐 경찰 조사 후냐(p.119)’고 질문했고 불리한 내용을 말하는 인터뷰이에게는 너그러운 잣대를 적용했습니다. 이중잣대였습니다. 제3자가 시장실 관련자들에게 한 고발을 빌미로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자 피해자를 ‘원인제공자’로 일컬으며 시장실 관련자들이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시장실 관련자들은 손병관 기사를 통해 2차 피해를 걱정하지 않고 아주 마음 편하게 ‘피해자가 전보를 원했다면 시장에게 더 강력히 주장했어야 했다(p.97)’거나 공무원 된지 5개월만에 면접요청을 받고 시장실 면접을 본 것을 두고 ‘피해자가 원해서 온 것(p.93)’이라고 하거나 ‘속옷 갖다놓으라고 한 것 가지고 성인지 감수성 부족 운운하는 게 오버(p.102)’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기자는 ‘안희정 사건이 공론화되었을 당시에 피해자가 용기낼 수 있는 타이밍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다(p.120)’는 등, 피해자가 동료에게 피해사실을 에둘러 말했던 상황을 인터뷰하고서도 피해자가 박 시장에게 쓴 편지를 마치 연애감정을 품은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내가 심기보좌하는 직장 상사가 출장을 가는데 편지로 ‘아쉽다’고 하지 ‘한동안 못 보니 너무 좋다’고 말하는 부하직원도 있을지 되묻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손병관 기자는 세 명의 취재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책에 인터뷰를 인용했습니다. 취재원들이 발행을 거절한 인터뷰들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은 마치 정확하지 않은 기억이어서 신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인터뷰이들이 외압에 의해서 발행을 거부하는 것처럼 묘사되었습니다.

손병관 기자는 피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던 활동가나 교수, 여성단체에 대한 공격과 직장 내 성희롱이 최초로 인정된 ‘신 교수 성희롱 사건’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신 교수 저서 인용, 본 사건이 ‘잠재적 가해자인 남성의 문제냐’며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에 대한 일방적 비난까지 행했습니다. 시장실의 구조적 문제를 비판하는 진보정당 정치인들에 대한 비아냥, 사건을 정치인의 ‘사생활’이라 칭하기까지 했습니다. <비극의 탄생>에는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기자로서 갖춰야 할 젠더 관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오히려 들만 함께하는 시간에 나에게 하는 이상한 행동들을 다른 직원들 앞에서 조금씩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손병관 기자는 다른 사람이 목격한 사건이면, 다른 사람이 목격했으니 성폭력일리 없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다른 사람이 목격하지 못한 사건이면, 목격자가 없으니 증거가 없어서 사실로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의 세계관에서 피해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폰을 여섯차례나 포렌식하며 수사기관과 인권위원회에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고 또 입증해 냈습니다. 또, 피해자에게는 매우 아쉬운 일이었겠지만 일부 사건들에 한해서라도 피해를 인정받고자 했고, 인권위 또한 보수적으로 판단하였음에도 박 전 시장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것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의 탄생>은 박 전 시장의 직장 내 성희롱 가해가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직접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 박 전 시장의 휴대폰은 철저히 봉인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다면 수사과정에 협조하지 않았던 박 전 시장의 유족측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혹 제기나 언급도 없었습니다. ‘성역이 없어야 한다’는 책 표지가 무색하게도 기자는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의 성역은 절대로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사회 초년생 여성일 뿐입니다. 스물 여섯살, 공무원이 된지 5개월만에 석연치 않은 이유로 비서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지만 맡은 바 열심히 노력했을 뿐인 한 명의 여성 노동자였을 뿐입니다. 또한 피해자는 그 누구보다 가해자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 한 마디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왜 그거 하나가 어려워서 피해자가 성형을 하고 개명을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지워야만 하는 상황까지 왔을까요? 안전한 법정에서 가해자에게 이렇지 말라고 소리치르고 싶었다는 한 여성 노동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왜 법정이 아닌 모든 곳에서 모든 것들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손병관 기자와 김대현 감독은 피해자에 대한 여론 재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의혹은 제기하면 끝이지만, 피해자는 어떻게 의혹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역지사지로 상상해보십시오. 어떤 집단이 나에 대해 sns에 글을 쓰고 책을 쓰고 영화를 만들어 나쁜 소문을 유포하면, 그만하라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만하라고 했더니 그 집단은 야만이고 폭압이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내용을 보고 반박을 하라고 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일상을 버리고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반박해야 합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단지 다시 일터로 돌아가 일할 수 있도록,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원순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피해자 한 명 보호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습니까? 다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법원에 개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를 했습니까,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해임하라는 요구를 했습니까? 표현의 자유를 그리도 주장하면서 왜 자유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는 반성이 없습니까. 피해자의 일할 권리 일상으로 돌아갈 권리, 잊혀질 권리, 2차 피해 당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는 한 치의 고려도 없습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한 여성 노동자의 살아갈 권리를 빼앗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 한 피해자는 끝까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 공동대표이자 사회를 구성하는 노동자입니다. 노동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경험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불쾌한 경험도 있습니다. 바로 성희롱입니다.

성적인 사생활 질문, 칭찬이랍시고 하는 불쾌한 언행, 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참 다양하게도 겪었습니다. 성희롱을 당했을 때, 거부감을 표하고 경고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무 대응도 못 했습니다. 당황할 때도 있었고, 불쾌하지만 이게 성희롱인지 판단이 잘 안 될 때도 있었고, 주변 분위기 때문에, 또는 불이익이 걱정되어 넘어갔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저는 직장을 쉽게 옮겨 다니며 직장 내 성희롱을 오래 겪지 않을 수 있었고, 최근에는 운 좋게 별일 없습니다. 다만 성희롱 가해자들을 적절하게 처벌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고, 성희롱이 너무 자연스럽게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착잡합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도 피해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그 중 지인 한 분이 감사하게도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다 하여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지인은 노동조합에서 상근간부로 일하며 두 번의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작년 첫 번째 성희롱 가해자는 업무 관계가 없던 사람이었는데, 술자리에서 마주쳐 불쾌한 발언과 신체접촉을 한 것입니다. 큰 곡절 없이 가해자를 즉시 제지하여 조치할 수 있었고, 불쾌했지만 괴로움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두 번째 성희롱은 처음과 달리 큰 혼란에 빠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을 응원해주고, 아이디어를 사업 계획에 반영해주고, 고민도 들어주고, 능력도 있고, 업무상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예상치 못하게 성희롱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신고하기로 결심하는 데에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해자가 맡고 있던 역할과 일을 잘할 사람이 있을지, 즉시 거부하지 못한 자신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관계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진 않을지, 노동조합에 피해가 되지는 않을지, 작년에 이어 또 피해자가 된 자신의 능력을 의심받거나 업무상 배제되지는 않을지, 수없이 고민하며 신고를 한 이후에도 한참 동안 불안해 했습니다. 지인은 두려웠지만, 자신이 당한 피해에 대해 동의했다는 오해가 퍼지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가해자의 잘못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인 자신의 목소리를 계속 내었고, 그 결과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가해자의 잘못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았습니다. 그렇게 가해자는 더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이거면 됐다고, 이제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고 똑바로 사과한다면 진심으로 가해자를 용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해자 또한 여느 가해자들처럼 끝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인은 자신이 증명해 온 업무적 능력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에게 성적 대상으로만 여겨져 명예가 침해당한 것이 가장 괴로웠고, 피해 목소리를 내고 나서 자신을 불편해 하고 피하는 사람들이나 본의 아니게 2차 피해를 주는 사람들로 인해 더욱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함께해주는 동료들 덕분에 안정을 찾고 버티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인이 속했던 이 노동조합은 가해를 직시하고 피해자에게 연대하며 정의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보여줍니다. 직접 겪어본 사람이라면, 피해 사실을 말하고 연대하고 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도덕성을 추구하는 집단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들이 바로 그 도덕적 이미지를 지키고자 은폐되는 일이 허다하고, 피해자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사회 체계 때문에 목소리 내기를 포기하는 등, 정의 구현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한 번이라도 더 피해자에게 관심을 갖고 연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특정 몇 명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찾아보았는데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의 작년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여성 중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비율이 37.7%에 달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3분의 1 이상이 겪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직장갑질119'에서 진행한 조사는 여성 대상이었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 매사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2차 가해는

가해의 범위가 넓고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쉽게 가해 상황이 벌어집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떤 언행이 가해인지, 무엇이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가해자에게 책임을 오롯이 물을 수 있을지, 배우고 생각하고 함께 발전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향한 끈끈한 연대와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라며, 2차 가해 그 자체인 영화 개봉을 규탄합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3\_박은하 위원장/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대응위원회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대응위원회는 신당역 살인사건 직후인 9월 21일부터 여성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직장 젠더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및 상담 내용은 강압적 구애, 악의적 추문, 신체 접촉 등 성추행, 외모 통제, 가스라이팅 등 젠더 폭력 전반입니다.

신고 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강압적 구애’, 일명 ‘구애 갑질’이란 표현으로 묶을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구애 갑질’은 조직에서 피해자보다 직위상 상급자들이 주로 행하며, 그들의 구애에는 성희롱, 성추행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권력 행사형 ‘구애 갑질’은 피해자가 저항하거나 단호하게 대응하기 어려워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힌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해당 조직에 미치는 가해자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피해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박원순 성폭력 사건을 바로 이러한 ‘구애 갑질’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폭력 행위이며,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대응팀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21일까지 엠브레인퍼블릭과 함께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직장에서 성희롱을 경험한 여성은 3명 중 한 명 이상(37.7%)이었습니다. 행위자의 67.4%는 임원이나 상급자로, 권력관계의 우위에 있는 경우가 절대 다수였습니다.

직장에서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 응답한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노동자 4명 중 한 명(25.8%)이 직장에서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 답변했으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로 좁히면 3명 중 한 명(29.5%)에 달했습니다.

행위자는 주로 상급자(45.9%)와 임원(22.5%)였으며, 성추행·성폭행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는 가장 많은 수가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63.1%)고 응답했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응답도 37.8%로 세명 중 한명 꼴이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중복응답)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고(52.4%)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4.1%), ‘피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싫어서’(15.1%) 순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회사와 대한민국 때문에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자신의 생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떠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발생하는 ‘구애 갑질’은 피해자가 단호하게 대처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구애 갑질’을 거부하거나 피하면 해당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없습니다. 행위자는 자신의 구애 갑질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적 혹은 인사상 불이익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합니다.

가해자는 죽었지만 망령이 되어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첫 변론’은 객관적인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이는 피해자를 향한 가혹한 2차 가해 행위일 뿐입니다. 박원순이 세상을 변호한 사람이었는지, 살아생전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는 성폭력 가해자이고 피해자의 노동환경을 지옥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의 죽음을 변호할 수는 없습니다.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사회 분위기는 피해자를 침묵하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 결과처럼 이미 대한민국 직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자신이 당한 성적 괴롭힘에 대해 ‘참거나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를 응원합니다. 성적 괴롭힘 행위가 있을 때 침묵하지 않고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대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응을 통해 상황이 나아지는 선례가 계속해서 쌓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자를 더욱 응원합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대응을 해주신 피해자를 응원하고 그의 노동환경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해자를 향한 모든 비난과 억측은 잘못되었습니다. ‘첫 변론’은 잘못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주십시오.

\*참고

		사례수	있다	없다
<b>■ 전체 ■</b>		(1000)	17.3	82.7
성별	남자	(570)	10.9	89.1
	여자	(430)	25.8	74.2
상용직	남자	(407)	9.3	90.7
	여자	(193)	21.2	78.8
비상용직	남자	(163)	14.7	85.3
	여자	(237)	29.5	70.5

		사례수	있다	없다
<b>■ 전체 ■</b>		(1000)	29.0	71.0
성별	남자	(570)	22.5	77.5

	여자	(430)	37.7	62.3
상용직	남자	(407)	20.4	79.6
	여자	(193)	37.3	62.7
비상용직	남자	(163)	27.6	72.4
	여자	(237)	38.0	62.0

사례 1\_대표는 ‘대화로 풀어라’, ‘실장 전 부인과 네가 닮아서 각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사례 2\_다른 직원과 같이 회식하자고 돌려 말했더니 ‘나랑 따로 저녁 먹으면 큰일 나냐’며 서운함을 표현했습니다. 이후 제가 연락을 받지 않자, 업무 외 시간에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은 업무 태도 불량이라고 하고, 회의 시간에 자기 말을 자른다고 지적합니다.

사례 3\_새로 부임한 상사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재는 예전에 엄청 예쁘고 날씬했었는데’, ‘내 결혼만 안 했으면 너 어떻게 해보고 싶었는데’ 같은 발언을 합니다.

사례 4\_상사가 회사 내부에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자 마녀사냥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피해자에게 “이제 만족해?” 등의 발언을 하며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사례 5\_회사 내에서 제가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회사 내부에 제가 가해자를 모함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사람들이 저를 빼놓고 식사를 하는 등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왕따 시킵니다.

#### 발언4\_김세정 공인노무사/돌꽃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돌꽃 노동법률사무소 김세정노무사입니다.

장맛비가 쏟아집니다. 빗길을 뚫고 다큐멘터리 <첫 변론>을 비판하고자 모여주신 여러 동지들, 비판의 목소리를 취재하고자 모여주신 기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범죄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제작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사회고발 다큐멘터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사를 찾아 읽으며 제가 생각한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변론> 포스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문구가 써있던데요. 이 자리를 빌어 박원순을 믿는다는 분들에게 확실하게 전합니다.

얼마나 더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의 결정을 통해 박원순의 행위가 권력형 성폭력에 해당함이 수차례 확인되었습니다. 박원순이 가해를 저지른 그 순간부터 변호되어야 할 명예는 없어졌습니다. 박원순은 죽음을 택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방어권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변호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과 법원의 판결문을 보았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희롱’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다수의 2차 가해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수차례 지적된 부분입니다만,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의 ‘성희롱’은 그 행위 정도가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성폭력’이라는 이름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희롱’은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에서 가해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행한 성폭력 행위를 뜻하는, 법에 정한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의 정확한 개념도 알지 못한 채 피해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희롱 판단에 있어 대법원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성희롱 판단에 행위자의 동기나 의도가 무엇인지는 중요치 않으며,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대처와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는 기본 판례이며, 이 사건 관련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 변론> 제작 발표회에서 김대현 감독, 다큐멘터리 원작인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기자 등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피해자의 머리 속에만 있는 것으로 탁상공론한 것’, ‘인권위 조사는 굉장히 허술하고 어떤 의도를 가진 조사’, ‘피해자 중심주의가 피해자 절대주의는 아니다’ 등의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사법 체계에서 입증책임은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어, 피해자는 매 순간 부정당하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누가 나서서 피해자를 탓하지 않더라도 피해 경험을 복기하는 과정에서, 입증하는 과정에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박원순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망언은 성폭력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가져야 한다는 사법부의 입장을 정면으로 배척하는 것이며, 고결하고 무결한 피해만이 구제받을 수 있다는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에 대한 증명뿐만 아니라 무결함까지도 증명하라는 책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박원순 사건을 비롯한 술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아프고도 명백한 것들입니다.

여성 노동자에게 부여되는 업무 다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 때문에 여성 노동자에게는 돌봄노동과 감정노동이 당연히 전가된다는 점, 남성중심적 조직문화와 위계구조에서 여성 노동자의 ‘공적’인 친밀함은 ‘사적’인 것으로 쉽게 해석된다는 점, 따라서 여성 노동자의 신고는 진정성을 의심받는다는 점, 여성 노동자를 보호할 조치와 제도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노동자라면 누구나, 여성 노동자라면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일해야 한다는, 헌법에 기초한 당연한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입니다.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개봉은 박원순은 죽었지만 그의 위력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2차 가해입니다.

서사가 부여되어야 할 것은 가해자의 과거가 아니라 피해자의 오늘과 내일입니다.

논의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 성폭력인지 아닌지, 가해자의 의도가 어땠는지보다 남성중심 사회에 대한 전 사회적 반성, 권력형 성폭력에 관한 인식 변화, 제도의 개선, 궁극적으로 여성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첫 변론> 제작 및 개봉 발표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피해자분께 위로와 지지의 마음을 전합니다.

피해자분께서 쓰신 책 <나는 피해호소인이 아닙니다>를 올면서 읽었습니다. 300쪽이 넘는 책을 보며 ‘이것은 살기위해 쓴 글이다’라고 느꼈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펴내기까지의 시간이 피해 회복의 과정이었기를 바랍니다.

피해자분이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몸을 일으키고, 급하게 채비를 하고, 부산스러운 출근길을 거쳐, 정신없이 일하고, 고단하게 퇴근하여, 친구들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상, 고단하지만 가끔 행복한 보통의 일상을 살기를 바랍니다.

책에 피해자분이 고 박원순을 추모하며 ‘정의가 강물처럼,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떠올랐다고 쓰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인용해서 발언을 마칩니다.

우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꿈을 함께 꾸요. 그 꿈이 현실이 된 세상을 함께 살아요.

감사합니다.

발언5\_이대호 전 서울특별시 미디어비서관

저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서울시에서 일했던 이대호라고 합니다. 재직 기간 대부분을 시장실에서 미디어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함께 일했습니다. 약 스무 명으로 구성된 비서실에서 저는 피해자와 동료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시 저는 이미 다른 직장으로 옮긴 상태였지만,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비난과 신상 유포, 불필요한 관심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당시 피해자를 버티게 했던 원동력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족을 비롯해 피해자를 사랑하고 아끼고, 돕는 사람들의 존재였습니다. 피해자를 돌보고 지키기 위한 가족들의 헌신, 지원단체의 가열찬 조력 활동은 거센 비난과 의심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켰습니다.

다른 하나는 신뢰받는 기관의 판단이 이뤄져 피해자의 결백이 증명되고, 관심사에서 멀어져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리라는 기대였습니다. 가해자가 사망해 경찰은 수사를 중단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매듭지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권위 있고 조사력을 갖춘 기관이 수십 명의 증인을 조사해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진상규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말하고, 댓글을 달고, 책을 쓰고, 기사를 쓰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제는 다큐멘터리를 만듭니다.

솔직히 저는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 소식을 보고 너무나 큰 절망감과 우울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느리지만 나아지고 있다고,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을 뿐이라고요. 점점 사람들은 이 사건을 잊고 있으니, 이따금 날아오는 화살들을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러나 다큐 개봉 소식을 접하고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거 정말 끝이 나기는 하는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심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론 영역에서만은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해자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주장이 사라져야 피해자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떳떳하면 그만이다,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괴로운 것은 떳떳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상기하는 것이 괴롭기 때문이고, 게다가 자신을 의심하는 목소리를 듣고, 누군가는 그 주장에 동조하는 상황이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은 실존하는 고통입니다. 피해자가 일상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통증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분들께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피해자의 삶의 의지를 꺾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공인도 아닌 피해자가 여론의 관심을 감당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정 하고 싶은, 새로운 이야기가 있다면 고인의 유족이 진행하고 있는 행정소송에 증거로 제시하시고, 큰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위를 중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는 행동은 책임지지 못할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이 기자회견에 뜻을 함께 하는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대의 마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또 2차 가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도 연대해주세요. 연서명에 이름을 남겨주시고, 연대의 말을 적어주세요. <첫 변론>을 만드는 일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여러분의 연대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부디 그 일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아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7월 5일 오전에는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권력형 성범죄 재발방지 대책, 피해자의 일상회복방안을 의논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 토론회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연대의 말씀을 남겨주시기를 염치 불구하고 부탁드립니다. 동료인 저조차도 이렇게 괴로운데,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절망이 얼마나 클지 사실 생각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웃에게 손 내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6\_김가영 부대변인/정의당

2020년 7월 9일, 저는 부산에 계시는 여성분들과 <김지은입니다> 북토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되짚고 피해자와 연대하고자 내딛었던 부산에서의 첫 발걸음이었습니다. 위력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은 무엇인지, 여성에게 안전한 일터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인지, 연달아 발생했던 권력형 성범죄에 일었던 분노를 딛고 일어서보려 했습니다.

폐허가 된 마음을 추스리던 순간, 갑자기 북토크에 참여하신 분들이 놀란 기색으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슬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는 속보가 떴고, 본능적으로 성폭력 사안일 것이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고, 그 날 북토크를 준비했던 이들과 밤새워 울었습니다. 온 세상이 피해자를 비난할 것이 걱정되었고, 성폭력 없는 세상을 꿈꾸던 우리의 세계 역시 또다시 무너져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금 좌절을 딛고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여성들 앞에, 박원순 전 시장의 무고를 주장하는 다큐영화가 개봉한다고 합니다. 다큐 감독의 인터뷰는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고 가치중립적인 척 하면서 2차 가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말로는 사건의 양측 주장을 다 들어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증거를 바탕으로 국가 기관의 판단이 끝난 사안에 가해자의 정황만 실컷 화면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비극의 탄생>의 저자와 <첫 변론>의 제작진,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은 이런 것입니다. 성폭력 피해로부터 생존한 피해자를 2차 피해 속에 다시 가두고, 그와 연대했던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다시 멈춰 세우는 일입니다. 무엇보다 성희롱, 성추행의 피해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잊으려 애썼던 일상 속 성차별, 성폭력의 피해를 고스란히 재현하는 일입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모든 행위를 되새김질하게 하는 ‘비극의 재탄생’이고, 피해를 고발한 모든 이들이 가해자로부터 들어야 했던 ‘첫 변명’의 반복 밖에 되지 않습니다.

‘2차 가해라며 침묵을 강요한다.’라고 하지만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적 없지 않습니까. ‘2차 가해라고 질문도 못 하나’고 하지만 성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질문한 적 있었습니까. 제작위원회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진실을 믿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붙잡으려는 것은 박원순이라는 이름으로 상징된 그들의 정치적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불행히도 그 신념은 가해자가 스스로 무너뜨렸고, 조직보위의 논리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요원하게 합니다.

저도 과거에 성희롱, 성추행 피해 경험이 있고, 어떻게 문제를 제기할지 몰라 침묵하기도 하고, 가해자에게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공간에서 아직도 권력형 성범죄는 도처에서 일어나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피해자와의 연대가 어떻게 이루어지든, 가해자의 가해 사실은 결코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첫 변론>이 개봉을 하든 안 하든, 흥행을 하든 안 하든, 당신들이 인정하고 않으려는 사실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도 호소합니다. 2차 가해에 줄 서는 일에 함께하지 마십시오. 내 주위 다른 이들이 호기심이라는 핑계로 2차 가해를 하려한다면, 단호히 안 된다고 하십시오. 우리가 2차 가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왜곡된 신념을 지키려는 자들이 스스로 무너지게끔 하는 길입니다.

또 다시 분노와 좌절의 폐허를 만든다고 해도, 피해자와 연대하는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이고, 진실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첫 변론>의 개봉을 처절한 마음으로 규탄합니다.

## 발언7\_김지윤 대외협력국장/녹색당

녹색당 활동가 김지윤입니다.

범죄가 범죄 자체로 인정받는 것이, 성범죄에 있어선 너무나 지난하고 어렵습니다. 피해 자체도 고통인데, 그 피해를 공적으로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피해자는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유명인, 정치인, 권력자들의 성범죄가 공론화된 이후 과정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피해자가 끊임없이 의심받고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이후에 누가 자신의 피해를 알릴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 박원순 시장을 여전히 비호하고 나서는 이들의 행태는, 매우 악질적이고 우리 사회에 크나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건을 뒤로하고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여정에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를 알리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습니다.

고인에게 진정 명예가 있다면, 그 명예를 정말 훼손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저들 자신들입니다. 본인들의 잘못을 감추고 고인에게 기대서 누렸던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바로 저들이 고인의 이름을 팔며 욕보이고 있습니다.

고인이 한때나마 여성과 약자를 위해 애썼던 그 발자취를 있는 그대로 평가받게 하고 싶다면, 바로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의 명명백백한 성범죄에 더는 변명을 갖다 붙이지 마십시오.

가해자를 위한 것도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자신들의 면피와 영향력 유지를 위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무모한 행태를 단호히 규탄합니다. 녹색당은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언제나처럼 이 땅의 모든 성범죄 피해자 분들의 곁에 서겠습니다.

기자회견문\_변론은 끝났다. 2차 가해를 멈춰라!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2020년 7월 9일, 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그가 자신과 함께 일하던 여성 비서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일하는 동안 가해자로부터 성적 의미가 내포된 메시지를 받았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주변인에게 조심스레 알렸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지속적인 전보 요청을 통해 4년만에 부서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을 알고나서 하루 뒤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수많은 의심과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였다는 비난과 진짜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이 맞냐는 추궁을 당해야 했습니다. 같이 일했던 일부 상사들은 그녀를 의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업무가 아니었다'는 등의 말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사와 반성폭력단체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인정했고, 법원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입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해자 주변인들이 계속해서 가해자의 명예회복을 자처하며 스스로를 변호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

다큐멘터리 <첫 변론>을 만든 사람들은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꾸렸습니다. 그들은 다큐를 개봉하겠다고 예고하며 겉으로는 박원순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허구의 박원순을 지키고, 그 뒤에 숨어 피해자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피해사실을 몰랐으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이 맞냐는 의심을 칼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2차 피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살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그 후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라면, 당신은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존경해마지않던 가해자를 스스로 고발해야 했을 때 피해자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피해자를 3년이 지나도록 괴롭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은재 이은하 이은호 이재정 이정윤 이정현 이주영 이주현 이준형 이지수 이지연 이지연 이지원 이지윤 이지윤 이지은 이지은  
 이지혜 이지홍 이지훈 이진순 이찬미 이창우 이채은 이춘혜 이충열 이태영 이하은 이한 이현민 이현주 이형진 이혜민 이혜빈  
 이혜자 이효민 이효진 임규리 임성애 임승우 임원영 임재하 임정희 임지수 임지영 임하늘 임현창 장동희 장미정 장세화 장수진  
 장연우 장연주 장인경 장종수 장진원 장혜영 장효연 전경주 전서현 전수진 전숙희 전우혁 전주희 전지은 전향이 전희경 정고운  
 정광채 정다소 정다혜 정문정 정미진 정민지 정서영 정서진 정성욱 정소희 정수빈 정여진 정예모 정예성 정유진 정유택 정윤소  
 정윤지 정인영 정인영 정자현 정지원 정지혜 정찬용 정재호 정철수 정하나 정하원 정현 정현숙 정현아 정혜원 정희민 정희아  
 정희민 제정연 조규식 조미정 조미희 조민재 조선주 조성용 조세영 조소연 조수근 조승빈 조아라 조용환 조윤수 조은영 조은정  
 조정학 조준하 조지은 조찬희 조현정 조혜민 조혜원 조호연 주영민 주혜린 주혜진 지산하 지수 진아 진재연 진지은 차연지  
 창준(사투) 채은 천인혁 최혜린 최 담 최가영 최민 최보근 최성훈 최소라 최수경 최수현 최윤석 최은영 최지수 최지우 최지원  
 최지현 최창현 최대섭 최한별 최현경 최효재 최희정 친구들의시네마테크 탁수정 푸하 하랑 하성안 하예린 하희봉 한명숙  
 한명숙 한소망 한아영 한이계영 한태경 허나겸 허민지 허승규 허승연 허우영 현은진 헤림 홍경희 홍다은 홍서윤 홍성아 홍수연  
 홍수현 홍주연 홍지민 홍한솔 황경환 황서연 황수연 황정민 희음 희정 하니 Jay

개인 연서명자 중 이름 공개에 동의해주신 시민분들의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주최단위 (46개 단체 및 정당)

강원아카이브사회적협동조합, 공폐단단(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녹색당 소수자인권위원회, 녹색당 여성위원회, 백래시공동대책위원회 팀 헤일,  
 봄알람, 부산여성회, 불꽃페미액션,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슝,틈, 여성환경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아카이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문학공동체 이မ်, 전교조경기지부 여성위원회, 젠더교육문화공간여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페미니스트  
 연합 FOF,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대응위원회, 직접행동영등포당, 진보당 인권위원회, 책방토닥토닥, 천안여성회,  
 청년유니온, 청년정의당, 청년진보당,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 페미씨어터, 페미위키,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화로, PIGS